

##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17, 사회학 - 처음 3분 동안

### 오디오 확인 불량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후 세션에서 우리는 저자의 역사 중심 접근 방식, 텍스트 중심 접근 방식, 해체주의를 포함한 독자 중심 접근 방식에 관한 해석학적 이론과 관련된 이전 몇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해석학과 해석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통합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션에서 하고 싶은 것은 해석학 및 해석과 관련된 여러 다른 방법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마스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성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라고 불리는 사회학적 접근과 사회의 매우 광범위한 윤곽 중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학적 접근 방식은 다른 해석 방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으며,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나 사회과학적 비평을 고려할 때 학자들이 사회학적 비평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영역 또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을 식별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성경 본문, 사회적 배경 및 성경 본문의 역사의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일부 전통적인 역사비평 접근 방식과 많은 중복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회 비판에 대한 두 번째 영역 또는 접근 방식은 텍스트, 성경 텍스트, 사회적 배경 및 성경 텍스트의 역사의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일부 전통적인 역사비평 접근 방식과 많은 중복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비평에 대한 두 번째 영역 또는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비판에 대한 세 번째 영역 또는 접근 방식은 전체 모델을 취하고 해당 모델을 성경 텍스트에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현대 사회학적 모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는 성경 본문 섹션.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접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적어도 내 전문 지식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하고 적어도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약성서 본문의 사회적 차원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비평이나 구약성경 본문 해석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방식 등의 제목이 붙은 책.

그러나 사회학적 비판의 이 두 가지 다른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 본문의 사회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 사회학 모델, 특히 현대 사회학 이론과 현대 사회학 연구를 성경 본문에 적용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 본문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했듯이 이 영역은 해석 방법을 고려할 때 많은 측면에서 범위에 속할 수 있고 Old New에 대한 더 넓은 역사적 접근 방식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역사, 본문 내의 역사적 참고 자료를 검토하는 성서입니다. 그 중 일부는 오래된 신약성서 본문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차원을 살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이 하는 일입니다.

본문 내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언급된 사회적 배경이나 사회적 차원을 살펴봅니다. 고대 성서 세계의 사회 구조나 사회적 가치를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의미하고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성경 본문의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사회적 역학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하거나 기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이 모든 문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문화의 경우

어려움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 및 역학이 때때로 다른 문화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대 성경 세계의 사회적 가치와 차원, 역학과는 거리가 멀다. 아주 간단한 예는 고대 세계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회 또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허용되거나 적절하고 개인이 개인으로서 누구인지와 그들이 개인으로서 성취한 것.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때로는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장벽을 만들어 개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세계와 고대 문헌의 세계 사이의 이러한 격차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 본문에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그 뒤에 놓여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역동성,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본문에 사회학적 분석을 적용하는 일부 사람들, 특히 복음주의 학자들은 사회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유사하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특정한 사회적 맥락, 역사적 맥락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성육신을 조사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성경 본문을 만들어낸 사회학적 맥락에 대한 문제.

제가 다시 적용하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고대 작가와 그가 쓴 고대 독자들 사이에 공유된 내용에 비추어 역사적, 사회학적 맥락에서 그 자체의 용어로 텍스트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근동 세계나 그리스-로마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현재 구약의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역동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유언과 그것이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우리가 자신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이 책을 읽는 경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은 사회적 가치, 특히 사회적 역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삶을 보는 방식, 사회에서 그들의 관계와 삶이 어떻게 지배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아주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그것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또는 그것이 성경 본문을 읽는 방식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제가 말했듯이 구약성경 본문의 사회학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몇 가지 예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성경 세계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회학적 차원이나 가치 중 하나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개인으로서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족, 자신이 속한

그룹, 자신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종종 가족의 소속감과 충성심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의 북미 상황에서는 때로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 때로는 분열된 가족이 종종 표준이고 가족 구성원과 가족 단위 사이에 유대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 특히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가족 단위가 다른 모든 관계 및 단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으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적어도 고대 독자에게는 예수께서 하신 이와 같은 진술이 오히려 충격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도 이 본문을 읽고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그 본문을 읽은 고대 청중들이 이 본문을 다소 충격적일 수도 심지어 공격적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장과 병행 기록과 다른 공관복음에 이것에 대한 다른 예가 있을 때, 나는 마가복음 3장과 31절, 그리고 아마도 양식 비평의 범주를 적용하고 있는 35절 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절정적 진술이 본문의 주요 특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자가 말하는 이야기, 저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선언 이야기의 예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고 고대 세계의 사회학적 차원에 적응한 사람들을 위해 즉시 중요한 사회학적 차원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 단위인 형제들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밖에 서서 그들은 그를 부르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군중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은 그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 다시 한 번 가족 단위를 박탈하는 것은 중요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인지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에 사람의 육체적 혈통과 육체적 가족 관계, 육체적 가족 단위를 강조하여 대답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여기 내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다시 다소 충격적인데,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구체적으로 혈육 관계나 육체적 혈통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가족을 재정의하셨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가족을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 단위를 육체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세기 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고 아마도 불쾌했을 것입니다. 1세기의 주요 사회학적 가치로서 가족 단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과 같은 본문에서 가족 단위 전체가 종종 복음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듣는 자 중에 하나는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자더라. 주님은 바울의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흥미로운 언급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분명히 신학적 문제와 설명이 있지만, 적어도 사회학적 수준에서는, 처음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동체 단위로서 가족 단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설명 가능합니다. 세기 그리스-로마 세계. 이것은 아마도 디모데전서 3장과 15절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실제로 편지 저자의 예로서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미안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다시 14절을 읽으리니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더디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곧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종종 가족 단위에 비유합니다. 즉 그는 교회를 친족 관계, 즉 육체적인 유대만큼이나 가까운 가족 단위로 묘사합니다. 서로에 대한 동일한 관심과 관심, 그리고 더 넓은 범위,

실제로 물리적 가족 단위와 물리적 친족 관계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중요해 보이는 사회적 가치 중 하나입니다. 즉 자신이 속한 그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섬이 아니다', '사람은 섬이 아니다'라는 말이 성경 세계에서 확실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이 누구였는지 또는 개인으로서 성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이고,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와 친족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명예 수치심이었습니다. 특히 신약성서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치심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명예롭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에게 수치를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명예가 상실되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시간을 보냈던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미 그 비유의 흥미로운 몇 가지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은 1세기의 명예와 수치의 차원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좋겠다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상속 재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끼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게다가 내가 제안한 대로 아마도 이 비유의 배경이 외딴 농장이 아니라 전형적인 고대 중동 도시와 마을이라면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함으로써 그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일을 뛰쳐나가서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에게 인사함으로써 아버지가 행하는 방식이 바로 그의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사회에서의 평판과 지위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성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그는 바로 이런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에게 수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복음서에서 특히 복음서가 끝날 무렵에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이건 바리새인이건 여러 유대 권위자들과 토론이나 논쟁을 벌이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당국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거나 단순히 정보를 찾고 있거나 예수님이 실제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의 명예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명예와 수치심의 역동성을 가지고 작용하는 문화에서 예수께 수치를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주 질문으로 응답하실 때, 그것은 반대자들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은 다른 성경 본문에 대해 질문을 받으시거나, 여자가 여러 번 결혼하고 남편이 모두 죽으면 그들이 제시하는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아내, 그녀는 부활할 때 누구의 남편이 될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를 넘어뜨리고 그를 그 자리에 눕히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명예에 도전하고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반대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 종종 그 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요한계시록 집필의 배경과 맥락을 제공하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말씀을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구약성서의 이세벨이나 사탄의 회당과 같은 반대자들의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용어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명예 수치 사회에서 반대자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이 명예-수치 역학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다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 즉, 명예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매우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회학적 차원은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약성서 본문에 사회학적 연구와 분석을 더 많이 적용한 신약성서 학자에 의해 가장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설명되었습니다.

브루스 몰리나(Bruce Molina)라는 개인. 그리고 몰리나는 제한된 재화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특히 부에 있어서 부는 제한된 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부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돈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가끔 복미 영어로 그 말이 나온 곳이 더 많다는 속담을 듣습니다. 1세기에는 제한된 재화 이론에 따라 그 진술은 더 이상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수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제한된 재화 이론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아마도 신약성경 본문에 여러 번 반영된 부자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하게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논의하고 싶은 마지막 사회학적 가치는 많은 신약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를 포착하여 성경 본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매우 널리 퍼졌던 것으로 보이는 고대 세계의 후원 시스템 또는 후원-고객 관계로 알려진 것,

그리고 수많은 텍스트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단순 하게 말하면 후원자-고객 관계는 후원자는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엘리트 사회적 지위에 있으며 재정적 수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관계를 맺는다면, 이 고객은 고객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고객은 가난하고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사람, 아마도 매우 가난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할 일은 고객과 관계를 맺고 고객에게 재정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객을 대신하여 일반적으로 정치적 지원을 대가로 일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객의 유일한 적절한 반응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돌아다니며 이 후원자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면 투표할 때가 되면 모두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후원자의 칭찬을 노래하고, 후원자가 한 일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이러한 사회적 역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아주 광범위하게,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후원자로 묘사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자-고객 관계는 고린도전서와 같은 책의 여러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고린도인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인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거부하는 부분을 포함시킵니다. 빌립보 교회와 아마도 로마 교회 및 기타 교회와 같은 다른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을 때 재정적 지원을 거부했으며 그 중 일부는 후원자-고객 관계와 그가 혼란을 피하고 싶었던 역동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고린도 사회의 또 다른 역동성은 순회 하는 철학자들과 일종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추종자들을 모으는 것이었고, 추종자들을 모으기 위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과 여행하는 교사들 중 한 사람에게 그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후원자와 의뢰인의 관계와 그와 관련된 일부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1장과 3장에서 지도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분열시킬 위험에 처한 그런 종류의 태도는 1세기 고린도에 존재했던 후원자-고객 역학에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본문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저자 바울은 근친상간과 관련된 남자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기꺼이 용인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더라도,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을 정말 화나게 한 것은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 즉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괴롭힌 것은 교회가 그것을 용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음, 누가 그런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이 부유한 후원자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만지고 싶어하지 않고, 이 활동에서 그를 부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은 후원자에게는 부적절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교회의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교회 중 한 곳에서 모임을 갖고 특정 사람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베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그를 부르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기꺼이 눈을 감고 그것을 용인합니다. 따라서 후원자-고객 유형의 역동성이 교회가 이를 기꺼이 용인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대한 많은 주석가들이 인식한 것처럼, 아마도 후원 시스템, 즉 후원자-고객 역학에서 비롯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다루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서의 또 다른 책인 David de Silva라는 학자는 히브리서가 후원자의 후원 체계와 후원자-고객 유형의 역학, 특히 경고 구절에 의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에 비추어 독자들이 감사를 표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많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를 거부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고객이 후원자가 한 일과 후원자가 그에게 준 은혜로운 선물에 대해 인정하고 감사하며 감사를 표시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드 실바는 후원자-고객 관계의 사회적 역동성에 비추어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을 분석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아마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후원자-고객 역학을 가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책인 빌레몬을 읽을 때 빌레몬을 읽을 때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편지를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울에게 빛진 책임과 감사의 빛.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빌레몬이 따라가서 오네시모를 다시 데려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바울의 주요 목적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일의 일부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무언가를 한 사람으로서 원하는 후원-고객 후원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는 빌레몬이 차례로 무언가를하기를 원합니다. 풀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이 행한 일에 대해 은혜를 갚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 에도 후원자-클라이언트 동적인 운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광범위하고 흥미롭게도 이 내용은 신약성서의 여러 책, 특히 요한계시록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한 책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제국 통치의 전체 시스템은 후원 시스템과 후원-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카이사르는 후원자로 여겨졌으며 심지어 카이사르를 넘어서 때로는 신들, 황제인 카이사르를 포함한 그리스-로마 신들도 점점 더 신격화되고 신격의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종종 그리스의 판테온과 함께 숭배되었습니다. 로마 신. 종종 수호신은, 미안하지만 황제는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신민인 로마에 평화와 부, 안전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 수호자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축제나 의식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통해 황제와 다른 신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지, 특히 일부 신약성서 저자들이 독자들이 이교 종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배타적인 예배를 타협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원 시스템 하에서 활동하는 이들 중 다수는 황제가 베풀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자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을 때 꼭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든, 그들이 가진 부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 그들은 그들의 후원자인 주인에게 감사의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황제, 그리고 또한 그것을 그들에게 부여한 그리스-로마 신들. 그리고 예를 들어 예배를 표현할 기회를 통해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때때로 신약의 저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 규범과 씨름해야 하며 독자들에게 때로는 그들의 후원자인 황제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분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또는 그리스-로마 신들. 따라서 때로는 사회학적 비평을 통해 고대 세계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역동성의 렌즈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역사를 연구하는 보다 전통적인 관심과 겹치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 내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사회학적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격과 이야기에 관해 조금 이야기할 때 이미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논쟁 중인 바리새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는 다시 중요한 사회학적 역학을 반영합니다. 이는 가족의 개념과 관련된 친족관계의 개념을 끌어낸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속한 사람이며, 당신의 가족적 기원은 당신의 성격과 삶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써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진정한 혈통, 진정한 친족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저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그 자신도 살인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성서 본문의 사회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얻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이 있고, 종종 성경 본문의 사회학적 역동성에 민감하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종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체 사회 수사학적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결과이자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적 접근 방식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텍스트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학적 모델, 대개 현대 사회학적 모델을 성경 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 행동에 관한 이론이자 현대 사회학적 모델에서 나온 통찰력으로, 해당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 전체 텍스트나 성경 텍스트의 일부에 전체적으로 적용 됩니다. 다시 한 번, 성경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적 모델을 적용한 학자들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목적은 그들에 동의하거나 평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지. 구약성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성서의

사회학적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 참조하는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부상과 군주제의 부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부상, 특히 가나안 정복, 그 땅의 정착, 이스라엘 국가의 부상, 또는 군주제, 왕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사회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먼 고트발트(Norman Gottwald)라는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의 정복을 이해하기 위해 흔히 농민반란의 기원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안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가는 더 유목적인 모델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나안 엘리트와 가나안의 계층 사회에 의해 억압받는 권리를 박탈당한 농민이며 이제 그들은 그것에 반발하고 더 많은 것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등주의형 사회.

그래서 그는 구약성서의 정복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농민반란이론을 사용한다. 또한 특히 다니엘서와 다른 유대 묵시록과 같은 책을 포함하여 유대 세계에서 묵시 문학을 매우 광범위하게 고려하면 이전에 예석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르 비평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James Charlesworth라는 개인이 쓴 구약의 Pseudepigrapha라는 두 권짜리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에는 초기 유대인의 대부분과 초기 유대 기독교 묵시록의 일부에 대한 영어 번역 모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개인의 환상적 경험을 기록하거나 꿈이나 환상적 경험을 통해 기록하는 묵시문학에서는 천국, 천국, 지옥의 환상을 본다. 때때로 그들은 여행을 떠나서 다른 장소를 봅니다. 때때로 그들은 미래를 봅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은 사회학적 분석을 위한 유익한 분야를 제공했습니다. 즉, 그러한 문학은 탄생시킨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역학에 많은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헌이 왜 중요할까요? 고대 세계의 어떤 사회학적 요인, 어떤 사회적 환경이 이러한 종류의 문학, 이러한 묵시적인 환상적 경험을 탄생시켰습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유형의 문학은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문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즉 묵시문학은 집단, 즉 집단 소외감이나 박탈감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묵시문학의 사회적 환경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와 현상 유지로부터 소외되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집단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와 기타 유대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은 이러한 우려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된 집단의 문학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문학의 출현에 대해 다소 정교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것을 투쟁에서 나오는 것, 예언에서 나오는 것,

구약의 예언에서 나오는 것, 비전 그룹과 그룹 사이의 투쟁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직자 엘리트이며 그 투쟁에서 묵시적인 문학이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학을 낳는 묵시문학의 사회적 환경은 종종 박해, 억압, 박탈의 상황으로 여겨지며, 더 나아가 사회학적 용어로도 이해됩니다. 일부 묵시록에서는 실제로 특정한 위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묵시록이 억압 과 박해, 위기의 특정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까? 한 사회학적 모델은 인지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종말이 일어났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꼭 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객관적으로 억압을 받느냐, 박해를 받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느끼느냐, 위기를 인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묵시문학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아직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학적 분석이 운동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묵시적인 운동 또는 묵시적인 유형의 문학.

다시 말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유형의 문학에 대한 사회학적 배경을 억압과 소외, 실패한 기대, 인지된 위기 등의 사회적 상황과 연관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신약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아주 아주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어떤 선지자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즉 여러 사회적인 이론이 있었고, 다시 문화와 시대를 넘나드는 사회학적 모델을 취하여 예수에게 적용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종말을 예상한 천년왕국 유형의 선지자였는가? 예수께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셨는가? 그는 치료자이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지자였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도 어떤 유형의 이론, 어떤 유형의 선지자 예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온갖 제안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출현과 그것이 어떤 사회였는지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이 있다. 교회가 어떻게 보다 은사주의 지향적인 운동에서 보다 제도적이고 제도화된 운동으로 이동했는지 설명하려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이론이 이를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단지 초기 기독교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적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작업으로 잘 알려진 사회학자 존 게이거(John Gager)입니다. 그는 실패한 예언에 대한 반응으로 기독교가 부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운동을 검토하면서 Gager는 기본적으로 많은 운동의 공통 현상은 초기에 운동이 실패한 기대와 실패한 예언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전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일종의 안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체면을 세울 수 있거나 그룹 내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아마도 실패한 기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거는 실패한 예언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 기독교의 출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David da Silva 또는 Bruce Molina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거드 타이슨(Gerd Tyson)은 사회학적 분석에 관해 많은 글을 쓴 또 다른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초기 운동이나 이스라엘 국가나 군주제의 출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 모델을 사용합니다.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학적 모델은 사회학적 배경뿐만 아니라 모델의 적용을 통해 때로는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귀중한 해석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견하고 본문과의 거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나 상황을 언급하고 17절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성찬례 또는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7장부터 끝까지 사회학적 분석과 배경이 실제로 그 본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문제는

신학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해석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이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취하는 고린도인들을 비난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신학적인 노선에 따라 해석했는데, 바울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주의 만찬을 취함으로써 삶의 죄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특히 우리가 오늘날 성찬례나 주의 만찬에서 우리 교회와 회중에 참여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설명은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는 명확한 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것은 후원자-고객의 전체적인 역학, 즉 부유하고 가난한 사회적 역학 전체가 아마도 고린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남용한 주요 문제일 것입니다.

즉, 고린도인들이 성찬례,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따라 후원자-고객 전체 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전체 사회 계층이 고린도인의 방식으로 흘러 들어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역동적이고 세속적인 사회 전체가 이제 그들의 교회 예배와 모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수호의뢰자나 이와 함께 이 사회에 사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계층은 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 부유한 사람들이 집안의 특정 장소에 모여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더 비싸고 좋은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반면 사회의 가난한 구성원, 즉 사회경제적 하층계층은 집 안의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질이 낮은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마도 두 사람, 특히 부유한 사람들을 섬기는 노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신학적 이해나 그들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식사, 즉 주의 만찬, 성찬례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치를 나타내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로마 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별을 더욱 영속시키는 맥락에서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부자는 한 곳에 두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곳에 두며, 적은 음식을 먹으며, 부자는 술에 취해 폭식하며 그것을 주님의 것이라 부르느니라. 저녁. 그것이 풀을 그토록 화나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질책한다고 말할 때, 나는 그가 주로 그의 논평과 수사법을 고린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사용하는 방식에 겨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그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구별되는 코린트 사회의 사회적, 사회학적 차원, 진행되고 있는 후원자-고객 역학을 반영하는 맥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찬을 사용하여 일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보다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적 분열을 영속시키는 방법을 조사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분명히 이 접근 방식의 두 번째 가치는 구약과 신약을 다시 한번 역사적, 사회학적 맥락에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그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성육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즉,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접근 방식의 몇 가지 우려 사항 중 하나, 특히 도매 적용, 사회학적 모델, 특히 현대 사회학적 모델의 도매 적용이 가장 먼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 때때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원주의적일 위험이 있습니다. 즉, 본문에 대한 유일한 설명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사회학적 설명이며 상황에 대한 다른 신학적, 역사적 설명은 배제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때때로 사회학적 모델의 적용 뒤에는 환원주의적 경향이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종종 반초자연적인 경향이 있는 사회학적 모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가능성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설명도 제공하면서 오로지 자연스러운 사회학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허용하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학적 차원과 그 나라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활동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출현에 대해 사회학적 설명만 제공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접근의 예가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차원. 세 번째는 사회학적 모델이 모델, 특히 구약성서에 대한 현대 모델을 강요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현대 모델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본문에 강요될 때, 실제로는 성경 본문에 맞지 않는 모델이면서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현대 사회학적 모델은 실제로 고대 세계와는 매우 다른 가치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본문, 특히 현대 사회학적 모델은 본문의 데이터와 우리가 고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모델은 모델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의 일부와 텍스트의 일부인 성경 텍스트를 거부하고 제쳐두는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학적 모델을 역사적 비판적 접근법, 전형적인 역사적 접근법과 같은 다른 모델과 함께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다른 해석 기법 및 다른 해석 방법과의 통합으로 사용하는 절충적 접근법에 대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다른 역사적 방법과 함께 사용될 때, 다른 해석학 방법 및 다른 해석 방법과 함께 실행될 때, 사회학적 비평은 성경 본문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오고 우리가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귀중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세션에서만 다룰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세션부터는 또 다른 해석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르비평의 문제입니다.

다루고 있는 문학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다음 세션에서 그것을 고려할 것입니다.